



#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와 경기순응성

조용운 연구위원 · 조영현 연구위원

## 요약

■ **현행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제도의 경우 경기하강기에 신용리스크양이 크게 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요구자본량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보험산업도 은행처럼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증해 보는 한편, 은행의 경우처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제도를 개선하여 규제차익의 발생 여지를 줄이고 보험부문이 실물부문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보임.**

● 경기 둔화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용리스크가 확대됨.

■ **리스크양 대비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현행 자기자본규제제도 하에서는 경기하강기에 신용리스크 증대에 따라 금융회사가 요구자본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대출여력이 감소하게 되어 경기하강을 증폭시키게 됨.**

●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제도의 신용리스크양 산출 기준에는 차입자의 신용등급, 부도율, 담보가치 등이 고려되고 있어 경기하강기에 신용리스크양이 증가하므로 보험회사는 이에 대비하여 요구자본량을 늘려야 함.

● 은행의 경우도 차입자의 신용등급별 부도 확률을 고려하여 신용리스크양을 측정(내부등급법)하므로 경기하강기에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요구자본량이 늘어나게 됨.

-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한 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① 신용등급별 부도확률, ②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③ 부도시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④ 만기(M: Maturity) 등 4개의 리스크요소를 바젤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개별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요구자기자본을 산정함.

- 국제기구(FSB와 BCBS)의 거시경제영향 평가 보고서와 BCBS의 장기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GDP는 0.19%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자기자본규제제도가 야기하는 경기순응성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부문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금융회사가 경기하강기에 기업대출을 감소시켜 기업의 신용경색을 촉진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 축소 혹은 파산, 주가하락, 자산가격 하락 등을 불러와 금융부문 리스크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규제제도가 경기하강기에 요구자본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음.

- 바젤Ⅲ에서 부도율을 추정할 때 장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하강기 부도액추정치(downturn loss-given-default estimates)를 제시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하강기에는 부도가 발생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젤Ⅱ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자산상관계수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4%까지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
- 경기하강기에 손실보전 등에 필요한 위험가중자산의 2.5%에 해당하는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적립제도를 신설함.
- 경기상승기에 신용팽창 시 0~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보통주 자본 또는 기타형태의 자본)을 감독당국이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 RBC 제도의 요구자본량 산출을 위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은 신용리스크 측정 시 경기순응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차입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신용리스크양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경기하강기에 차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보험산업의 경우도 자기자본규제제도가 은행과 같은 경기순응성을 야기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은행의 경우처럼 경기하강기에 신용리스크양의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기자본규제제도를 개선하여 규제차익의 발생 여지를 줄이고 보험부문이 실물부문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경기변동에 따른 신용등급의 변동이 즉각적으로 리스크양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기간을 이용한 신용등급별 리스크 가중치를 신용리스크의 산출 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가 기업의 중장기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리스크양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처럼 경기하강기와 상승기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임. **kiri**